

“그들이 애국자다”

글 · 이정윤(일간보사 기자)



지난 봄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의 한 간부가 진홍색 테의 소형 액자 한 상자를 들고 환경부 기자실을 방문했다. 명함에 박힌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라는 직장 명칭도 매우 생소했지만 뜬금 없이 들이민 예쁜 액자는 기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작은 사건’이었다.

이런 지런 설명을 통해 그 액자는 버려진 페스티로폴을 분리수거해 재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 순간은 ‘쓰레기와 자원’의 관계를 또 한번 터득케 한 귀중한 시간이기도 했으리라.

폐기물에 대한 정의는 시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필자는 ‘나에게 필요 없는 것(물질)’으로 규정하고 싶다. 내게 필요치 않은 것은 자연스럽게 버리게 된다. 그러나 그 쓰레기가 고스란히 매립장 또는 소각장으로 보내진다면 우리의 국토는 어떻게 되며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도 한번만 바꾸어 생각하면 ‘남에게는 필요한 물질’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폐기물 처리가 쓰레기 감량으로, 재활용으로 바뀌면서 상황을 180°로 변화시킨다.

스티로폴 관련 통계를 잠깐 들여다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경제를 돕는 물질임을 알 수 있다. 태어나서(스티로폴)는 건축단열재로 기능해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쉽게 깨지거나 문드러지는 가전제품이나 농산물을 온전히 보전해 국민 생활을 충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죽어서(廢스티로폴)도 神의 손(재활용업체)을 거쳐 예쁜 액자의 원료가 되는 재생수지 등으로 거듭 태어나 사람의 풍요로운 삶을 거둔다.

지난해 전국에서 버려진 페스티로폴은 41.9%가 재활용되어 100t 종량제봉투 1,600만 개분(240억 원)을 절약했고 이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6만평의 매립 절감효과도 거두었다고 한다. 또 어려운 시절에 재생 잉고트 및 사진액자를 수출해 520만 달러의 외화를 획득했다고 하니 실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모든 경제활동이 수익을 거냥하지만 폐기물 재활용처럼 그 결과가 공익과 맞아 떨어지는 것도 흔치 않다. 3D업종에다 불안한 원료 수급, 생산된 제품에 대한 불신 등이 겹쳐 재활용산업에 처해진 여건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은 우리의 국토를 지키는 일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국자라고 부르고 싶다.